

2009 AATCC IC 참관기

김동빈, 엄민영, 오정택, 고준석 ·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AATCC(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는 1921년 Dr. Louis Olney(Lowell Textile School)에 의해 창설되어 텍스타일 디자인, 재료분야, 공정분야 및 시험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영리 협회이다. AATCC에서 주최하는 International Conference는 텍스타일 디자인과 관련된 colorant, chemical 및 고분자의 응용에 관한 분야 및 섬유와 섬유 재료의 품질 관리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에 관한 국제 학회이다.

2009 AATCC IC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미국 South Carolina의 Myrtle Beach에서 개최되었다. 학회의 공식일정은 3월 11일 오전, 개회식이나 인사말 없이 세 개의 강연장에서 각 분야의 발표가 시작됨으로써 출발하였다. 다수의 학회들이 개회식을 가지는 데 반해, 절차보다 내용 자체에 더욱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다. 이번 AATCC 2009 IC에 발표된 논문은 크게 구두 발표의 3가지 트랙과 포스터 세션으로 나누어졌으며 구두 발표의 경우 3가지 트랙 내에 세부 세션이 분류되어 2일간에 걸쳐 학회가 진행되었다.



[AATCC 2009 발표 세션]

Track I Concept 2 Consumer®(C2C)

- session 1; Global Compliance(4편)
- session 2; Global Sustainability(4편)
- session 3; Color Systems and Theory (5편)
- session 4; Performance and Innovation (3편)

Track II Chemical Applications

- session 1; Herman and Myrtle Glodstein Student Paper Competition (7편)
- session 2; Dyeing Technology(4편)
- session 3; Flame Retardant Textiles and Regulatory Issues (4편)
- session 4;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ssues(4편)

Track III Materials

- session 1; Biologically-Inspired Fibrous Materials(4편)



Figure 1. AATCC IC 학회장 앞.

- session 2; General Session(4편)
- session 3; Composites(4편)
- session 4; Personal Protection Materials(4편)
- OLNEY Medal Address(1편)
- Poster session(15편)

총 3개의 강연장에서 세 개의 주제가 동시에 발표되고 원하는 강연에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듣고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Concept 2 Consumer® 트랙에서는 마케팅 관련 내용과 함께 섬유 업체가 가진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분야는 국내 학회에서 학생신분으로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이번 학회를 통해 많은 수의 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문제점과 연구계획에 대하여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의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문적인 성과를 보고하는 학회에서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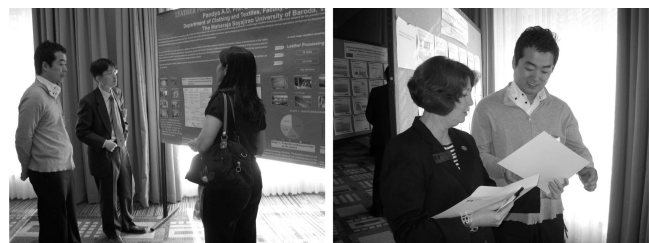


Figure 2. AATCC IC 포스터 발표장 모습.



2009 AATCC IC 참가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 모습

물지 않고, 당면한 문제들을 많은 업체가 직접 들고 나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신선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Chemical Applications Track에서 발표된 student paper competition session은 경쟁을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나누는 session이었다. 참가자들 모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 둘째날에는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과 불연성 textile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 관련 다양한 연구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Material Track의 첫째날 오전에는 Biologically-Inspired Fibrous Materials이라는 주제로 spider fiber에 대하여 4가지 발표가 있었으며 둘째날에는 composite과 personal protection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었다. Material Track의 경우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주제라서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경청할 수 있었다.

AATCC 학회의 구두 발표도 모든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어 관심있는 연구 내용을 모두 듣지는 못했지만 모든 발표장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였으며 다들 자신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내용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모습은 한국의 어느 학회와 다르지 않았다.

첫째날 오후 마지막에 진행되었던 poster session에서 poster presenter로 참가하여 한 시간 동안 스탠딩 타임을 가졌다. 이번 학회에서 한국 학생으로는 총 세 명의 건국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이 포스터 발표에 참가하였다. 포스터 발표와 동시에 구두 발표도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분산된 분위기였지만 구두 발표 중간 휴식 시간을 통해 관심있는 참가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포스터 주변의 다른 발표자들과도 서로의 연구 분야에 대하여 토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회 두 번째 날, OLNEY Medal Address를 시작으로 다시 각 트랙별로 3개의 강연장에서 첫 번째 날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 속에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들간의 짧은 학회기간 동안 모든 발표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번 학회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세계의 연구 동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학회였다.

특히,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 관련 참가자들의 발표를 통해 현재의 염색 분야 및 가공 분야 등의 섬유 산업 다운 스트림에 위치한 분야의 연구에 대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대학의 학부수업시간에 배웠던 여러 내용 중에, 향후 연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이번 학회의 발표들을 통해 진일보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표된 창의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서 학생으로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 김 동 빈 -----

2008.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2008-현재,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석사과정
전화 : 02-450-3512
e-mail : kdongbin@konkuk.ac.kr

● 엄 민 영 -----

2008.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2008-현재,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석사과정
전화 : 02-450-3512
e-mail : min02yo@konkuk.ac.kr

● 오 정 택 -----

2008.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2008-현재,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석사과정
전화 : 02-450-3512
e-mail : jws635@Konkuk.ac.kr

● 고 준 석 -----

1995.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졸업
1997.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석사)
2002.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박사)
2002-2005. (주)효성 생산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현재,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부교수
전화 : 02-450-3527
e-mail : ccdjko@konkuk.ac.kr